


One You : Duk Young Workshop 2015

청소년, 우리의 희망

워크숍

사회구조의 변화과정에서
학생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

2015. 4. 23.

주최:  재단법인 덕영재단

덕영재단 소개

덕영재단은 “밝은 미래를 위한 가치 창조”를 목표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기르고 긍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 1996년 6월 13일에 설립한 비영리 교육재단입니다.

덕영재단 주요 사업

- ▣ 국내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 ▣ 국내외 학생을 위한 도서보급 지원사업

-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 ▣ 교육 경제 및 역사의 교류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학술연구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업

- ▣ 국민정신함양과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몽사업

- ▣ 청소년 인성교육훈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개최사업

앞으로도 본 덕영재단은 미래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Homepage : www.dukyoung.org

인 사 말

봄소식과 함께 여의도에 벚꽃이 한창인 4월 덕영재단에서 준비한 One You(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너): 덕영워크숍 2015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1월 통계에 의하면 인구 5천만을 넘어선 우리나라에는 국내거주외국인들이(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1,774,603명이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결혼이주민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혼건수도 늘어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3배가 증가하였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이 19.5%나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의 자녀수는 5년 전 10만 7,689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20만 4,204명이라는 2014년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세계의 많은 근로자들이 American dream을 기대하며 미국으로 이주했듯이 세계 13위(2014년 IMF발표 GDP기준)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에도 Korean dream을 찾아 이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외국인결혼이주민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땅인 미국 대륙에 유럽계 백인들이 이주하였고 후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며 우리보다 앞서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된 나라가 미합중국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남북전쟁 후 1863년 1월1일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 2년 후인 1865년 12월 의회에서 노예제폐지가 공식 승인되었고 1870년에 흑인들의 투표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노예제폐지 후 15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지구상 5대륙의 모든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어 'greatest melting pot in the world'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사회도 아직까지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과 범죄 사건들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와 사회는 흑인들과 소수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법안들을 만들고 음악, 문학작품, 영화 등을 통한 계몽운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56년 Edna Ferber의 소설을 영화화한 'Giant', 1960년 Pulitzer상을 받은 Harper Lee의 소설 'To Kill a Mockingbird' 와 1967년 Stanley Kramer의 'Guess Who's

Coming to Dinner’ 외에도 2015년 2월에 베스트 송으로 오스카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 "Selma"와 같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현재 약 2백만 명에 가까운 외국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단일민족이란 우월감의 틀을 깨고 먼저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배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무모한 고통과 희생이 따르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상호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교육하여 순조롭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To Kill a Mockingbird’를 읽으며 꼭 기억하고 싶었던 구절을 떠올려봅니다. “너희들이 성장하면서 매일매일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불공평할 짓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절대 잊지 말아야한다. 언젠가 흑인에게 불공평한 짓을 하는 백인은 그가 누구이든 얼마나 부유하던 그리고 어떤 대단한 가족의 일원이든 상관없이 그는 단지 쓰레기일 뿐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종, 국가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까지 아무것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편견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얼마나 부유하던 그리고 어떠한 가족의 일원이든 그는 우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 제공자라 생각합니다.

소설가 Harper Lee의 “세상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의 양심이다.”라는 말은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쉬운 요즘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부락이 힘을 합쳐 한 아이를 키운다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속담같이 모두 힘을 모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우리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워크숍을 위해 함께 하여 수고하신 고윤주 소장님, 김평안 신부님, 이대훈 교수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영재단 이사장 전 헬리시아



일 정 표

12:30~ 1:00 등록 및 접수

1:00~1:10 인사말.....전 헬리시아 이사장님

1:10~2:10 '다름'을 대하는 마음에 관한 문화 심리학적 이해.....고윤주 소장님

2:10~3:10 한국내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사례발표.....김평안 신부님

3:10~3:25 휴 식

3:25~4:30 자기발견과 감수성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 이대훈 교수님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례

'다름'을 대하는 마음에 관한 문화 심리학적 이해.....	9
한국내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사례발표.....	19
자기발견과 감수성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	31

'다름'을 대하는 마음에 관한
문화 심리학적 이해

고윤주 소장님

‘다름’을 대하는 마음에 관한 문화심리학적 이해

덕영워크숍 2015

2015년 4월 23일

발표자: 고운주

루돌프어린이사회성발달연구소장



무엇이 다른가?

국적
성
나이
키/몸무게
피부색
직업
성격
.....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다름’에 관한 심리학

우리는 왜 충돌하는가(Clash)

헤이즐 마커스(Hazel Markus)
스탠포드 대학교
행동 학과 교수

앨레나 코너(Alana Conner)
심리학 박사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다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 변인

자아self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다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 변인

자아self

우리는 자아를 통해서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자아의 선택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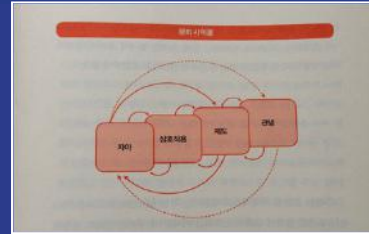
자아self

독립적인 자아	상호의존적인 자아
독립적	상호의존적
개별적	관계지향적
고유한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적응하는
자유로운	뿌리내린
평등한	수직적인

평등어빙어사원서방단역교
상용용교

자아self

자아와 사회가 연결되는 경로
자아 ↔ 상호작용 ↔ 제도 ↔ 관념



평등어빙어사원서방단역교
상용용교

세 가지 '다름'

가슴과 머리: **동양 & 서양**

지구에서 온 **여자** & 지구에서 온 **남자**

근로 계층 & 중산층

평등어빙어사원서방단역교
상용용교

강연자의 성향

독립성	상호의존성
서양	<u>동양</u>
남성	<u>여성</u>
<u>중산층</u>	근로계층

평등어빙어사원서방단역교
상용용교

가슴과 머리, 동양과 서양

한국인 희정과 미국인 리처드의 수업 태도

희정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 노자



리처드

“말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등어빙어사원서방단역교
상용용교

가슴과 머리, 동양과 서양

90년대 독일에 수출된 현대 자동차

독일 친구 리타의 오빠

리타의 옷 **고르기**: 세련되고, 가볍고, 심플

하며, 발랄한 스타일의 옷

리타의 머리 **하기**: 앞머리는

1cm, 옆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뒷머리는

목에 닿지 않도록 짧게

(‘별 그대’의 천송이 스타일)



평등어빙어사원서방단역교
상용용교

가슴과 머리, 동양과 서양

미국 미디어

“다르게 생각하라”
 “죽은 물고기만이 물살을 따라 흘러간다”
 한 이유식 브랜드 “철분과 아연 그리고 독립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

“머느리도 몰라요”
 “500년 전통의 방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여권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지구에서 온 여자/지구에서 온 남자

현재 미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관리직과 전문직에 더 많이 종사함. 서른살 이하의 도시 여성들은 또래 남성보다 수입이 더 많음.

한국에서,
 ‘여군 1만명 시대’
 사관 학교에서
 여성 수석 졸업자들 속출



평등여권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지구에서 온 여자/지구에서 온 남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남녀 차이:

여성은 수학을 못하고 감성적인 금성인

남성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감성이 부족한 화성인

평등여권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지구에서 온 여자/지구에서 온 남자

하이드(Shibley Hyde)
 주요한 성차이에 관한 연구, 2005

운동 수행 능력: 남자들은 더 빨리, 더 멀리 던지고 힘이 세다.

성적 특성: 자위 행위를 더 많이 하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섹스를 즐긴다.

평등여권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지구에서 온 여자/지구에서 온 남자

현대 사회에서
 더 나은 지위를 얻는데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발달된 두뇌!

수석하는 여학생들이 속출하는 이유:

여성 친화적 교육 문화

(엄마 → 유치원 선생님 → 초등학교 선생님 (77%, 2014) → 중등학교 선생님(53%, 2011-12, 올해 신입 교사 68%))

평등여권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지구에서 온 여자/지구에서 온 남자

“남성이 지배적인 조직에 여성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알멘딩거 & 헤크먼의
 미국, 영국, 동독, 서독
 78개 교향악단 연구, 1995



모든 교향악단에서,
 여성 단원이 증가하면서 연주자들의 태도, 관계, 연주 수준이 모두 떨어짐.

여성의 비율이 40%를 넘어가면서 남녀 모두 자신의 역할과 단원들과의 관계, 소득, 지위에 만족하기 시작함.

평등여권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지구에서 온 여자/지구에서 온 남자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

터닝 포인트 40%가 넘기 전까지 소수자들은 고정 관념의 벽을 넘기 위해 긴장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 못하며, 조직도 다양성의 장점을 활용 못함:

40%가 넘어간 이후에야 '다름'의 장점이 발휘됨

평등여권이사회서밋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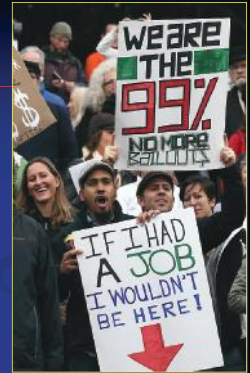
계층: 사회경제적 문화

2011년 9월 17일 맨해튼에서 시위 발생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시위로 이어짐

“우리는 99%다”

미국 부의 43%를 가진 1%를 향한 분노

‘가진자’와 ‘못 가진자’
‘교육을 받은 자’와 ‘교육을 못 받은 자’



평등여권이사회서밋연구원

계층: 사회경제적 문화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학습한다



“저는 스스로 알아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맞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자아)

“아이들을 위해 엄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호의존적 자아)



평등여권이사회서밋연구원

계층: 사회경제적 문화

버클리 대학 합격 통지서

진정으로 버클리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창조하세요. 배우고, 상상하고, 세상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곳에서... 버클리를 선택하세요.

근로계층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가르침!

경제적 지원과 함께 ‘상호의존적 자아’를 이해해주고 ‘독립적 자아’를 지지해줄 때 중산층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했다.

평등여권이사회서밋연구원

결론: 두 가지 자아가 다 필요하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



우리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발전해왔다.

평등여권이사회서밋연구원

방법은? 다양한 자아 개발하기

독립적인 자아 깨우기

-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다
-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주목한다.
-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분명히 다름을 명심한다.
- 모든 행동을 선택의 차원에서 바라본다.
-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평등여권이사회서밋연구원

방법은? 다양한 자아 개발하기

상호의존적인 자아 깨우기

- 귀를 기울인다.
- 나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비슷한지 주목한다.
-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과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다름을 명심한다.
-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한다.
-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한국언어문화연구소

한국내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사례발표

김평안 신부님

한국 내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사례 발표

김평안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이미 5천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우리 땅에는 5천만 명의 우리 국민 말고도 1,774,603명(2015년 1월 현재)의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며, 결혼이주민들이다.

그 중 결혼이주민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다. 2015년 1월 현재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총 150,798명이며 이 중 여성이 84.9%, 남성이 15.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출신이 60,412명(한국계 24,427명), 베트남 출신 39,702명, 일본 출신 12,657명, 필리핀 출신 11,062명, 캄보디아 출신 4,589명, 태국 출신 2,678명, 몽골 출신 2,379명이며 기타 국가 출신이 17,319명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결혼이주민들의 수만큼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민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총 이혼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3.3%(4171건)에서 2013년 9.1%(1만480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도 19.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다문화가족 이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해 2008년 5만8007명, 2009년 10만7689명, 2014년 20만4204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 이런 지표들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자녀 수 증가, 이혼, 별거 등에 따른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증가 양상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은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해 어떤 학설이나 이론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 소속되어 사목활동을 하면서 만난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인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본 론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6년에 성북구결혼이주민가족지원센터로 개소하였으며, 현재는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다.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며, 한글교육과 가족상담 및 다문화 관련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그동안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상담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전화)조사를 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350가정이 상담을 받았으나 그 중 199가정(57%)은 연락이 되지 않아 설문을 할 수 없었다. 통화 연결이 된 109가정(31%)이 설문에 답해 주었고 42가정(12%)은 설문을 거부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다문화 가족 상담 센터 이용자에 대한 이후 실태 파악 설문지

결혼이주민여성	가족	남편
1. 국적(미리 파악 기입) / 국적 취득 여부 확인		
2. 나이(미리 파악 기입)		
3. 한국 체류 기간		
4. 지역		
5. 초기 상담일과 내용 (미리 파악 기입)	5. 관계 (시부모, 시누이 등)	5. 관계
6. 현재의 어려움	6. 초기 상담일과 내용 (미리 파악 기입)	6. 초기 상담일과 내용 (미리 파악 기입)
7. 주변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는지? 어떠한 도움을 받는지?	7. 결혼초기 결혼이주민 과 어려웠던 점	7. 결혼 초기에 부인과 힘들었던 점
8. 현재 만족하거나 행복한 것이 있다면?	8. 현재 결혼이주민과 어려운 점	8. 현재 부인과 사는데 힘든 점
-	9. 현재 결혼이주민이 가 족이어서 좋은 점	9. 현재 부인과 사는데 좋은 점

전화를 통한 설문으로 응답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과거의 일을 다시 드러내야 하는 경우이기에 설문에 응하는 상대의 언성이나 기분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신중해야 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질문의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고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가장 힘들어 함.
- ②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 부인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자녀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남편의 고령과 무직).
- ③ 과거의 일을 가지고 전화한 것에 대한 불만.
- ④ 남편이나 시부모 측에서는 상담의 공평성을 언급.
외국인이라고 한쪽 말만 들어주는 것 같아 매우 불만스러워 함.
- ⑤ 가족들 대부분이 주변의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한 경우가 많음.
상담의 일회성에 대한 불만.
- ⑥ 사람 사는 일, 특히 부부 간의 일이라 여전히 갈등이 있음.
- ⑦ 응답자 스스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 ⑧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되묻고 실적을 위해 전화하는 것이지 물음.
- ⑨ 시어머니, 남편의 경우 며느리나 부인에게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음.
- ⑩ 많은 가정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를 잊고 있었고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함.
- ⑪ 전화 조사 중 방문을 요청한 가정도 있음.
- ⑫ 자녀 한글교육 등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바쁜 이유나 귀찮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가정도 있음.
- ⑬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른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등,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도 있음.

< 상 담 사 례 >

1. 부부 갈등 : 부인의 외도 의심

열정씨는 28세로 네팔에서는 왕족계급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친한 친구가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시집을 가자, 친구와 같은 나라에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개업소를 통해 2009년 결혼했다. 남편은 45세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며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남편과 사이에는 4세 아들이 있다. 2013년 9월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열정씨는 네팔 관련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남편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부갈등

이 생겼고, 결국 2014년 4월 4일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열정씨는 독립적이며 자존심이 강하지만, 남편은 부부사이의 작은 일도 누나에게 이야기하고, 혼자 결정하지 못하며, 모든 가정사도 부인인 열정씨 보다 누나나 형에게 의존하는 편이다.

한 달에 한두 번 네팔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것을, 남편은 열정씨가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싫어해서 많이 싸웠으며 그럴 때마다 이혼하자고 하여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열정씨도 합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 열정씨의 친정 고모 딸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자주 하는데, 그것도 남편은 열정씨가 남자와 통화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녹음을 하여 들려주었으나 남편은 믿지 않고, 네팔행사에 갈 때도 활동했던 사진을 보여 주거나 아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했으나 남편은 이것 역시 믿지 않았다. 임대아파트 거주기간 2년이 만료가 되어,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때도 남편은 열정씨와 논의하지 않고, 누나에게 먼저 논의하였다. 부부관계는 아들을 낳은 후 하지 않았다.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하고부터는 시댁식구와도 갈등이 생겼다.

부부상담은 총 5회 진행하였다. 상담의 목표는 열정씨의 가족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고, 열정씨 역시 상담을 통해 오해를 풀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고치기로 서로 약속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혼 숙려기간 동안 남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열정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보다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였다. IT컴퓨터 활용능력 공부를 하고, 자격증 시험을 볼 예정이다. 운전면허 2종 보통도 합격했고, 현재 주행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센터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좀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8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역인증시험도 볼 예정이다. 상담은 아직 진행 중이다.

2. 부부갈등 : 남편의 가정폭력

행복씨는 베트남에서 2006년 이혼을 하고 전 남편 사이와 낳은 딸은 남편이 양육하고 있다. 친정아버지가 이혼하여 새어머니와 사는데, 새어머니와 행복씨의 사이가 좋지 않아, 2009년 한국 남자와 재혼하고 입국하였다. 현재 4살 아들과 살고 있다. 남편은 일용직 건설업 목수로 지방에서 일할 때가 많아 한 달에 한두 번 귀가한다. 남편과 남편의 전처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소재 병원 간호사이며 가끔 집에 온다. 한국에 온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7월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자녀하고만 살고 있다. 친정아버지를 돕기 위해 2013년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집근처 식당에서 일용직 근무를 했는데 남편이 식당 주인의 사위와 관계를 의심하여 폭력을 휘둘렀다. 행복씨는 이혼을 원했으나 남편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며 이혼은 원하지 않았다.

이 부부는 총7회의 내방상담과 거주지역이 강원도 정선으로 전화상담을 병행하였다. 상담의 목표는 행복씨가 집으로 귀가한 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행복씨와 남편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을 각서로 썼으며 행복씨가 귀가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강릉 또는 서울)으로 이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행복씨를 다시 의심하여 폭력을 휘둘렀고, 행복씨는 다시 가출하여 서울에서 일하면서 아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떨어져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편을 믿고 귀가했으나, 남편의 폭행이 반복되었으며 결국 행복씨는 현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¹⁾에 입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며 재판이혼 진행 중이다.

< 중간 정리 >

센터의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초기입국 결혼이주민들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로 입국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초기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는 결혼이주민들도 많다. 10년을 넘게 한국에서 살았지만 한국어로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는 결혼이주민이, 취업을 위해 이와 관련된 한글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본다. 단기적인 교육과 지원만으로 결혼이주민이 한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중장기의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도 위의 사례와 같이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1) 결혼 이주민으로서 이혼을 한 모자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개소된 자활센터.

마고네 공부방

마고네공부방(이하 공부방)은 2011년 7월에 이주와 관련된 자녀(결혼이주민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 자녀 등)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현재(2015년 4월) 중학생 2명, 초등학생 6명의 학생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우선 아동이 공부방에 오면 심리검사(지능평가, 성격평가, 전두엽관리기능검사, 주의력검사)를 통해 아동의 내면상태를 파악하고 상태에 맞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몇 명의 아동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 상 담 사 례 >

사례 1 : 사랑이(남, 2002년 3월 4일생) 모자가정→새가정→모자가정→외조부모 가정

사랑이의 어머니는 한국국적 필리핀 여성으로 사랑이가 태어나자마자 이혼했다. 사랑이를 3세 때 사랑이를 필리핀으로 보내어 7세가 되는 2008년에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한국에 데리고 와서도 사랑이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해서 베들레헴 어린이집²⁾(이하 어린이집)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맡겼다. 9세(2011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후 공부방을 이용하였다. 이 시기에 어머니는 필리핀 양아버지(미등록체류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2012년 3월 심리검사를 하고 바로 심리상담 치료를 시작하여 2014년 8월까지(2년 5개월간) 진행하였다.

사랑이는 또래와 원만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학습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특수 학급반에 속해 있다. 단기기억능력이 저조하고 정리정돈이 습관화되지 않아 물건을 아무데나 놓거나, 잃어버린다.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르고 분노 표출 시에는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다. 그러나 그룹 활동 시에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집은 월세이고 어머니는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2시 또는 새벽에 귀가하여 사랑이와 대화하거나 챙겨줄 시간이 없다. 새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 9시에 귀가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거의 대화도 없고 가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집에서 어머니와 한국말로 대화하고 어머니, 새아버지는 자국어(영어)를 사용하지만, 부부싸움할 때의 말들은 사랑이도 알아듣는다. 집 안 역시 매우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청결하지 못하다.

2) 2003년 8월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24시간 어린이집.

어머니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없는 동안 새아버지와 생활하며 사랑이는 더욱 방치된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새아버지는 도박하고 월세를 내지 않아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주인은 이사가 나가라고 하여 2월 8일에 보문동으로 이사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였는데 이사한 곳의 집세를 새아버지가 내주고 있어 가끔 새아버지가 집에 와서 자기도 한다. 어머니는 사랑을 보육하기 어렵다고 3월 19일에 필리핀으로 보냈다.

사례 2 : 믿음이(여, 2003년 3월 5일생) 모자가정

믿음이의 어머니는 한국국적 필리핀 여성으로 믿음이는 1세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으며, 어머니가 어린이집의 야간보육도우미로 오랫동안 일했다. 믿음이가 태어나기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 믿음이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2011년 초등학교 입학 후 공부방을 이용하였다. 2012년 3월에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시작하여 2014년 4월(2년 1개월간)까지 진행하였다.

집은 월세이며 어머니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정부지원을 받아 생활한다. 믿음이의 성격은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하며 애정결핍으로 인한 분노를 표출한다. 짜증을 자주 내는 편이라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어머니로부터 칭찬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데, 사랑이 어머니는 과소비가 심하고 외부로 보여 지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한다. 특히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믿음이에게 풀어, 어머니와 다투고 공부방에 오는 날이 자주 있다. 2014년 3월말에 이사를 하여 공부방 이용을 중단하였다.

사례 3 : 성실이(남, 2005년 2월 3일생) 온가정

성실이의 어머니는 한국국적 베트남 여성이며 성실이에게는 두 살 위의 형이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우로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다. 2014년 초등학교 입학 후 공부방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14일에 심리검사와 상담, 치료를 시작하여 2014년 8월(2년 4개월간)까지 진행하였다.

집은 온가정을 이루고 있고 자가 단독주택으로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여유롭다. 하지만 아버지는 음주와 폭력이 심하다. 어머니는 다혈질로 화도 자주 내고 가끔 폭행을 한다. 그래서 성실이는 부모의 부부싸움과 폭력을 피해 친구의 집으로 피하며 자주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성실이의 형은 정신지체로 욕구조절이 되지 않고 이상한 소리와 돌출행동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성실이가 어린이집에 왔을 때 초기에는 성실이 역시 정신지체라고 생각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실이의 장애적인 행동이 가정환경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적극적인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로 비

장애우 판정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성실이는 대화 도중에 끼어들고 교우관계에 자신이 없고 적극적으로 어울리지 못한다. 모르거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부정적이며 쉽게 포기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눈치를 본다. 다른 사람이 성실이의 행동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안절부절 못한다. 애정결핍으로 우울, 좌절, 분노가 있다. 행동이 느리고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다. 형이 정신지체로 부모님이 성실이에게 기대가 크다.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는 형을 돌보는데 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신의 책이나 물건을 집에 가져가면 형이 망가뜨리고 찢어버려 공부방에 자신의 소지품을 두고 다닌다. 성실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예, 숙제, 만들기 등)은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사례 4 : 진실이(남, 2005년 9월 4일생) 모자가정→ 새가정→ 모자가정

진실이의 어머니는 한국국적 필리핀 여성으로 2011년 12월에 재판이혼을 했다. 판결 결과 진실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있다. 현재 어머니와 진실이는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는 진실이의 아버지와 이혼 후 파키스탄 남성과 동거하며 혼인신고도 했으나 새아버지는 결혼비자를 얻기 위하여 2013년 출국 했다가 재입국을 못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다가 2012년 초등학교 입학 후 2012년 6월 심리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여 2014년 8월(2년 2개월간)까지 진행하였다.

집은 전세이고 어머니는 외국인 가정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친부는 진실이네 근처에서 베트남 여성(성실이 이모)과 재혼하여 진실이의 집안일에 관여한다. 진실이는 또래에 비해 체격이 작고 산만하며 집중력이 부족하다. 예민하고 우울 및 분노, 무슨 일이든 혼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식습관이 음식에 욕심을 부리고 급하게 먹어 과할 경우 자주 구토하기도 한다. 1년 간 특별 지도로 많이 좋아졌다. 독서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으며 학교숙제도 혼자하기 힘들다.

사례 5 : 열정이(남, 2006년 11월 27일생)

열정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이다. 가정불화가 심하고 아버지로부터 무차별 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다, 열정이가 5세 때 쉼터로 피신하였고 이후 부모님은 이혼을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다가 2013년 초등학교 입학 후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필리핀 새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다. 2014년 10월 심리검사 후 현재 심리치료가 진행 중이다.

집은 전세이고 어머니는 외국인 대상 상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식간에는 새아버지가 열정이를 돌본다. 열정이의 양육비는 모두 어머니가 부담한다.

열정이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이며 운동을 좋아한다. 사교성이나 불임성이 좋아 교우관계가 원만하다. 경쟁의식이 강해 동기부여만 잘해주면 학습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열정이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고 친구와 싸울 때 힘으로 제압하려 한다. 그리고 우울, 분노가 많고 어른들과의 대립에 울음으로 대처한다.

사례 6 : 희망이(남, 2005년 7월 12일생) - 모자가정

희망이의 어머니는 베트남 여성이다. 희망이의 부모는 이혼을 하였고 서울이주여성디딤터에서 어머니와 지내다가 2013년 11월에 공부방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9월 심리검사를 하여 현재까지 심리치료 중이다.

집은 전세이고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어 평일에는 대부분 공부방이 끝난 후에 어린이집으로 간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를 만나러가고 방학이나 명절에도 아버지와 며칠씩 지낸다. 희망이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애정욕구가 강하다. 어머니의 엄한 양육 때문인지 어머니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중심적이고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또래와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보다는 피상적인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 중간 정리 >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의 심리 및 지적상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화가 많고 분노조절이 안 되며 자존감이 낮고 산만하다. 보통 수준의 지적 능력이나 저학년에서는 무리 없이 학습을 따라가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연산과 조합능력이 떨어져 학과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부모가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므로, 부모의 학습지도가 힘들다. 심리 치료를 하면서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는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의 학습능력 고양을 위해 단체 학습이 아닌 개별 맞춤 학습이 필요하다.

나가는 말

개인적으로 다문화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칭하는 ‘다문화 자녀’ 라는 말은 어쩌면 이제 차별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가난하고 뛰어나지 못한 존재로서 세상에 비추어지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사실 모든 결혼이주민들과 자녀들이 위의 사례들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결혼이주민들과 그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다만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그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 세상을 그렇게 어둡게 바라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라는 이주민을 위한 공익 광고를 보면서 ‘무엇이 다른가?’ 라고 질문해 본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어느 것 하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기에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모든 이주민들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한 번에 한사람씩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켈커타의 노숙자들을 돌보았던 성녀 마더 데레사의 말처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이웃으로써 함께 살아가갈 때 진정한 상호교류의 다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기발견과 감수성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

이대훈 교수님

자기발견과 감수성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1. 평화교육의 시작: 서로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 형성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할 때 처음에 배움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발견적 배움과 감수성 변화를 지향할 때는 교육자의 교육 역할보다 배움 공동체 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니까 각자 모두 아주 많이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아우라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감정과 생각의 자유를 내면으로부터 억누르는 ‘마음속의 경찰관’들을 일찌감치 내던지면 더욱 좋습니다. ‘말해도 될까’의 걱정, 정답-오답의 강박증도 그런 경찰관들입니다. 이는 사회의 억압적 구조가 내면화된 것이기에 ‘마음속의 경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엄숙함, 금기를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배움의 공동체 형성에는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과정, 자기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과정, 많이 얘기하고 듣고 웃음을 나누는 과정, 함께 어떤 배움을 할까 기대하고 설레는 과정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P.E.A.C.E. 페다고지에 기반한 평화 배움에서는 ‘교육’ 보다는 ‘배움’을 더 중시하고, 말로 ‘배움’과 못지않게 느낌의 힘과,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서로 배움’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느낌과 말, 생각과 몸동작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이를 되새기고 다시 읽어내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서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움에서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답답한 상태 보다는, ‘여러 목소리’ ‘여러 감정’, ‘여러 상상’이 있는 역동적인 상태가 더 큰 배움이 됩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배우는 과정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한 교사이고, 그래서 워크숍을 준비한 사람들은 ‘진행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화 배움은 평화를 만드는 힘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타인과의 권력관계는 하나 우열관계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층위에서 여러 방식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만 해도 우월 또는 열등하게 간주되는 여러 힘들이 함께 섞여서 존재합니다.

물리적이고 남성적인 힘, 즉 주류의 권력과 다른 새로운 힘이 평화를 만드는 힘일 것입니다. 그 평화의 힘은 물리적이거나 남성적인 것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평화 배움의 공동체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새로운 힘, 평화의 힘을 함께 찾아주고 확인해주고 긍정해 주어서 힘답게 만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는 평화교육에서는 페다고지(pedagogy)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교육’이라는 개념과 접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페다고지는 배움의 방식과 철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평화 배움의 다양한 방식을 ‘방법론’이나 기술로 축소시키지 않고, 매번의 활동과 성찰 과정이 담고 있는 의미와 사유(철학)를 되새기면 더욱 좋겠습니다.

- 한국 현실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의 일환으로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에서 개발한 “P.E.A.C.E. 페다고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페다고지: 페다고지는 방법론이 아니라 힘내기, 힘기르기 empowering(힘주기)과정입니다. 배움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참여, 말하기, 듣기, 터치, 느끼기, 그리고, 공감하기, 팀워크 등이 모두 힘기르기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교사/진행자에게 힘을 덜 주고 학습자가 권력을 회복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평등성, 다양성, 대화, 타자화(他者化), 아하! , 명상의 경험 모두 평소에 익숙치 않았던 힘을 기르는 길이 됩니다.

- P.E.A.C.E. 페다고지의 P(participatory)는 참여, E(exchanging)는 대화, A(artistic and cultural)는 예술, C(creative and critical)는 창조, E(estranging)는 낯설게 하기를 의미합니다.

P. 참여적:

- 학습자가 경험과 지식, 언어, 몸짓 등을 존중하여 힘을 낸다.
- 교사의 권력이 학습자에게 이양된다.
- 학습자 상호간 작용, 소통, 이해, 느낌, 배움이 일어난다.
- 초기 두려움에서 새로운 안정감으로의 변신을 체험한다.
- 나홀로 배움에서 함께 배움으로, 학습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 학습공동체는 저절로 수동적 배움에서 문제해결의 문화를 형성한다.
- 배움이 고정되지 않고 매 순간 생성된다.
- 교사/진행자도 큰 학습을 하고 교육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E. 대화식:

- 교사(教師, 가르치는 스승)가 교사(橋絲, 실타래-다리)로 변신하는 길.
- 말하는 권력, 듣는 힘을 학습자=교사(橋絲)가 가진다.
- 스스로 말함과 들음 속에서 새로운 언어가 창조된다.
- 좋은 질문의 힘, 질문이 갖는 생성의 힘을 공유한다.
- 수평적 비교, 풀어놓기, 다양성의 강점을 체화한다.
- 단답형, 속답형, 지시형, 양자택일형 패러다임의 대안을 체험한다.
- 금지중심의 언어체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A. 예술적:

- 미, 쾌, 숭고, 교호(交互), 모방, 감축이 포함되는 것은 예술적이다.
- 감수성은 예술성이다. 무감각은 아름다움을 공격한다.
- 모든 사람이 가진 예술의 힘(미, 숭고, 쾌, 축...)을 발현한다.
- 시각, 청각, 촉각, 율동, 육감, 상상을 증폭시키고 개발한다.
- 예술을 대척시킨 근대과학적 패러다임의 대안을 체험한다.
- 미, 쾌, 축, 숭고 등에 대한 자신의 잠재된 힘을 찾고 긍정한다.
- 감정의 다양화, 다변화를 체험한다. 이분법적 세계관에
대항한다.
- 지속되는 감수성을 형성시킨다.
(거부감보다는 미적 감동이 오래간다.)

C. 창조적:

- 예술적이면서 학습공동체의 공동 노동의 과정이다.
- 경험의 간접적 체험이자 문제해결의 연습이다.
- 창조노동하는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이 이루어진다.
- 창조하는 표현 속에서 타자가 되어본다. 내화/외화 한다.
- 전시, 공연, 보여주기를 통해 타자와 2차로 대면하고 소통한다.
- 현실과 '우리'의 변화/변형 가능성을 상상하고 실험한다.
- 영구소비자에서 생산자의 쾌감을 체험한다.
- 학습공동체의 역사로 남는다.

E. 낮설게하기:

- 아하!의 순간, 큰 배움의 순간이다.
- 익숙한 고향에서 벗어나는 여행의 체험을 가져오는 것이다.
- 낮설어짐이 갖는 당황, 두려움, 쭈뼛거림, 경직, 시간의 멈춤,
머뭇거림... 등의 다른 '시간'을 체험.
- 불안 대 안보, 위협 대 안전 이라는 이분법적 평화관을
붕괴시킨다.
- 질문 중의 질문, 최고의 질문은 모두 낮설게 하기이다.
- 현실과 '나'이기도 한 거리감, 그 거리를 조절하는 힘을 갖는다.
- 주류 지식의 권위를 붕괴시킨다.
- 변혁의 배움, 해방하는 배움의 기초이다.

2. 평화와 폭력의 기초

다른 사회도 비슷하지만 한국 사회의 폭력 현상과 구조는 차별과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형성되는, 일상의 차별 즉 권력의 우열입니다. 즉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권력의 사다리가 폭력의 구조이자 발생 토대로 작용합니다.

평화 배움에서는 보통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나누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적 폭력에 대응하는 '소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는 '적극적 평화'를 각각 대응시킵니다. 또 구조적 폭력은 문화적 폭력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 가지 폭력 사이의 관계는 긴밀하고 거의 일심동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평화 배움은 개별적 폭력을 구조적 폭력의 이해와 적극적 평화의 추구에 바탕해서 대응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폭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같은 집단으로 상상하는 '우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인종, 민족 등의 경계선으로 구분지어진 정체성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관념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념은 '우리'는 대략 똑같다 라는 상상과 의식에 기초하고 이를 통해서 타자에 대한 집단 통념(Stereotype)을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타인을 대한 '울타리'로서 작용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동질하다고 생각된 것이 타인의 차이를 판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이렇게 동질하니까 타인은 저렇게 동질적일 것이다 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아기 때부터 불평등이 철저하게 훈육됩니다. 즉 위계적 언어와 행동 규칙, 사회적 신분 격차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평등한 관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훈육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운동장에서 뛰노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위아래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과 같은 서열 사회에서는, 우리와 타자가 항상 위아래의 관계에서만 인식됩니다. 모든 것에 위아래가 있다는 것이 유아기 때부터 문화 교육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로 나누는 것이나 잘난 사람 중심으로

경쟁하고 못났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배제, 왕따 가해하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얘기하면서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강력한 위아래 서열을 매일 매일 열심히 실천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훈육된 ‘우리’ --> (위계적 가치, 단일 문화에 대한 환상) --> 편견
편견 -->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차이와 선호도) --> 차별
차별의 관습화 --> 구조적 폭력
폭력의 구조 속의 개별적 행위 --> (행동, 사건과 결합)
--> 직접적 폭력
폭력의 문화 --> 체념, 숙명론, 위계주의, 권위주의 --> 자발적 노예화

‘우리’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평소에, 민족, 편, 국가, 소속, 고향, 본적, 출신, 00나라 사람, 00지역 사람들 등의 언어로 매일같이 일상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질성 이념은 우리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해서도 큰 착각을 정당화합니다. 타자에 대한 이러한 집단적 편견은, 스스로에게는 개인의 편견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폭력의 정당화 일차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폭력 구조는 사유를 단순화, 이분법화 하고 이는 곧바로 무사유와 연결됩니다. 평화의 배움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평화 배움에서는 이분법적 사유를 우리와 타자 관계의 단순화, 폭력의 시작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분법 사유와 언어는 그 단순함이 강점이어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모 아니면 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래서 결국? 결론만 말해’에 집착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파악했듯이 무사유는 폭력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더 적극적인 폭력적 권력의 정당화에는 항상 이분법적 사유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또 이분법 사유는 서구/근대의 괴물이자 식민화의 결과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의 축수는 너무 넓게 깊게 파고들어 있어서 이분법과의 싸움은 꽤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폭력이 개별적 사건을 넘어선 것이라면 구조화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구조화되었다는 것은 사회의 권력구조가 개인들에게 내면화되고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

이 구조화되는 일차 단계는 일상생활의 언어와 (주류적) 관계맺기에서 시작됩니다. 또 일상의 언어와 관계맺기는 주류 권력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매일같이 훈육됩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폭력적 구조-미디어 훈육은 압도적으로 시각적 매체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평화 배움과 평화의 힘 기르기는 일상의 폭력 구조, 미디어 속의 폭력과 권력을 파악하는데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3. 구조적 폭력과 몸

그런데 사람의 몸은 또 쉽게 동질화되지 않고 쉽게 훈육되지 않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의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가부장제 권력이 여성의 몸과 행동을 통제하는데 진력을 다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은 몸의 통제를 통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와 차별, 그리고 몸의 관계를 이해하면 평화의 힘을 기르는데 좋습니다.

‘우리’ 의식은 우리와 타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아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과 폭력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집단 통념(stereotyping)은 편견을 만들어내는 바다입니다. 고정관념의 작용은;

- 어떤 사람/사람들에 관한 ‘같음’과 ‘다름’에 관한 일반화
- 현실의 다양성을 단순한 인식과 언어로 표현할 때,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얻고자 하지 않을 때 발생
- 시민사회와 인권의식이 약할 때 사회는 고정관념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또 편견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의 작용은;

- 소수자 약자인 ‘타자’에 대한 우열에 따른 고정관념
- 피부색, 성별, 출신, 경제수준, 종교, 관습, 나이, 신체 등을 계기로 발생

- ‘우리’가 더 익숙하다, 더 좋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
- 사람에 대한 보편적 기준, 정보, 경험, 분리, 권력관계에서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차별 즉 간접적 차별과 직접적 차별은 폭력을 만들어내는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구조적 폭력으로 사회 체제의 일부가 됩니다.

평화의 성찰은 지금 여기의 구체적 사회에서의 폭력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폭력이 사회마다 특수한 구조적 성격을 가진 까닭에 삶의 여러 방면에서 유기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빈곤과 갈등, 호칭, 서열, 남녀 관계, 직종 관계, 예의 관념, 가부장제, 종교에 대한 태도, 인종에 대한 태도, 서구 백인 문명에 대한 태도, 군사와 힘에 관한 태도 등 모든 분야에서 폭력은 서로 관통되고 연결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조적 폭력에 대한 관심은 나와 사회, 국가와 세계, 생각과 물질, 삶과 함의 관계를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구조적 폭력이라는 관점은 방관자, 관찰자의 태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도 깊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방관자나 관찰자는 ‘내 문제가 아니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어차피 그래왔어’라고 하면서 ‘원래’와 ‘어차피’의 비관적 주문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니야’,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해’, ‘나도 무언가 바꿀 수 있어’, ‘이런 비참함은 방관할 수 없지 않나’라는 질문과 상상이 가장 바탕이 되는 평화의 성찰이며, 근본적 자기변혁이자 ‘우리’ 변혁이자 사회변혁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에서의 평화교육이 방관할 수 없는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와 ‘원래 그래’의 세계가 어떻게 한국에 정착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해체하는 과제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오로지 ‘우리’를 순수하게 또 강하게 상상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작동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군사주의와 가부장제가 서로 결합하고 상호강화시키는 토양이 되었고, 정치와 사회 거의 모든 면에서 경직된

사유가 쉽게 위세를 떨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수하게, 또 자주 관찰되는 전쟁 미화, 호전적 문화, 군사주의, 가부장제, 사대주의 등은 물리적 힘, 근육적 힘, 봉건적 질서를 숭앙하는 낮은 수준의 세계관과 및 문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단계부터 발생하는 아주 오밀조밀한 일상 문화 형성과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가치체계가 아주 가까이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화되고 군사화된 장난감, 남성 무인 중심의 위인전, 폭력적 학교문화, 폭력/강함과 젠더 형성, 선도부, 단체기합, 군기-규율, 선후배 관계, 서열화된 기수-학번 문화, 폭력적 신입 절차, 상명하복, 성과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 가라 행정, 하면된다 주의, 서열화되고 차별화된 언어, 반인권적 아동병영체험, 군사적 극기훈련, 인종주의-백인숭배, 개발주의-서구숭배, 서열화된 호칭, 서열화된 직업과 직책 호칭, 서열화된 학교, 서열화된 나이, 서열화된 의복, 서열화된 종교적 신분, 서열화된 주거지역, 서열화된 몸짓 문화... 등 다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 복합적 실체는 한국의 집단적 주류 정체성('우리는 누구인가')의 근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별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그 대신 위아래 서열 - 모든 것에는 위아래만 있다! 로 됩니다. 한국 사회의 특성과 그 속의 폭력성은 '오로지 위아래만 있음'이라는 위계의 이념/문화/권력 구조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완전히 다른, 수평적이고 상호적이고 어울려,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그래서 평화로운 삶과 사람으로의 변화는 깊이 익숙해진 감수성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폭력의 대안: 몸과 재현

서로 배움의 평화교육에서는 강의를 최소화하고, 몸을 통한 활동과 성찰을 중심으로 합니다. 몸 활동은 활동 그 자체의 재미를 넘어서서 여러 배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 활동의 페다고지는 간접 체험, 직접 체험, 현실의 재현과 재창조, 가시화, 복합적 의사소통, 공동체 형성, 역할 놀이, 공간속의 배움 등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몸을 통한 창조적 활동은 대상을 낳고, 관찰을 낳고, 거리를 낳습니다. 이 거리가 일상화된 권력구조로부터의 일시적인 이탈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약하자면,

<멀고도 가까운 당신 = I>, <전시를 통한 거리 만들기>

창조적 몸 활동은 사물의 연계, 사물과 사람, 생명의 연계, 그리고 고유하게 연계됨으로서 고유하게 변형되는 특이한, 역동적 과정을 만들고 드러냅니다. 창조적 페다고지는 동적 과정과 변화가 가지는 특이성(보편성)의 철학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창조적 활동은 연계적 사유와 실천을 문화예술적으로 표현합니다.

창조적 활동은 몸과 정신, 오감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지배적 위치를 버리게 합니다 (근대적 이성 ~ 남성성).

몸 활동은 노동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포함하는 창조적 활동은 생산-생명-체제의 맥락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창조적 활동은 변형과 그 순간/그 곳만의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문자 언어가 아닌 다양한 언어가 드러나면서 추상화된 소통과 상상력이 우선시되고 그 결과 고정된 문자언어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이는 주류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과 통합합니다.

몸 활동을 통한 재현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지척의 억압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를 어떻게 형상화하여 대면할 수 있을까? 공허함, 두려움 등과 보이지 않는 억압은 어떤 관계일까? 질문을 제기합니다.

‘폭력과 억압의 일상성/평범성’을 생각하면, 우리 머리 속의 경찰, 몸 속의 경찰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서 ‘경찰’은 내면화된 억압과 규칙을 상징함.) 이 질문은 평화 배움의 몸 활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경찰관은 남성의 젠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젠더를 핵심으로 고려하지 않는 평화 배움은 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억압과 피억압은 별로 투명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억압을 억압이라고 여기거나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억압은 전방위적으로 침투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거나 균질하게 침투하지도 못합니다. 여기에 미시적이지만 거대한 변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를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연극과 같은 재현 활동은 무대와 연희를 만들어내고, 애국심이나 안보관 같은 것이 아니라 희비, 미, 쾌를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또 미적 공간은 기억과 상상을 해방시키고 과거-미래를 소통시킵니다. 이러한 미적 공간은 두 개의 현실을 보고 동시에 두 개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풍자와 해학, 그리고 세계의 다양한 민속문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억압자의 창조성은 저항의 표현 또는 틈새 비틀기입니다.

많은 평화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자존감을 먼저 회복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배우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습자가 먼저 윤리적으로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평화가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자본주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 학습자들의 자아에 수많은 타자가 인위적으로 주입되어 있고, 자신 속에 타자에 대한 폭력이 만연해 있어서, 학습자에게 이미 자기존중성이 있는 자아가 상당히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같은 군사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타자를 부각시키는 것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폭력과 타자에 대한 폭력의 복잡성을 드러내는데 핵심적이며, 평화교육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폭력의 통제에 핵심적입니다.

배움 공간에서 타자를 부각시킨다는 것은 타자를 만나는 시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타자와의 만남 속에서, 다른 존재, 정체성, 정체성의 균열, 이해불가능성이라는 균열, 여러 타자로서의 다중적 목소리, 존재의 다중성, 다중적 존재들 사이의 연계와 변화 가능성 등을 배움에 갖고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 본 자료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청소년인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워크숍에 후원하여 주신 박세현님과 이영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윤주 소장 (루돌프어린이사회성발달연구 소장)

-김평안 신부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이대훈 교수님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연구교수)

